

월서 스님의 주련 이야기 36

참회 없이 바른 삶도 없다

[원문]
아석소제악업(我昔所造諸惡業)
개유무시탐진치(皆由無始貪嗔癡)
중신구의지소생(從身口意之所生)
일체아금개참회(一切我今皆懺悔)
백겁적집죄(百劫積集罪)
일념돈탕진(一念頓湯淨)
여화분고초(如火焚枯草)
-삼각산 도선사 호국참회원

[번역]
내가 예부터 지어온 악업은
끝없는 탐진치에서 비롯되었다
몸과 입과 뜻에 따라 지은 허물,
내가 이제 속속들이 참회 하나이다
아무리 오랫동안 쌓인 죄라도
한 생각 돌이키면 문득 사라지네
마치 마른 풀이 불에 타듯이.

[산해(禪解)]
지난 3년 동안 불교 포교의 최대 이슈는 바로 '선묵 해자 스님과 마음'으로 찾아 가는 108 산사 순례기도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한국 불교 포교의 일대 혁명이었다. 이 순례기도회는 108산사에서 108배와 108불공을 올려 인간이 가진 108번뇌를 소멸하여 108선행과 108공덕을 쌓아 108염주를 만들어 가는 인연공덕을 쌓아가자는 데 있다. 사찰 하나를 찾을 때 마다 이러한 행을 실천하는 일은 마치 보현(普賢)행을 실천하는 일과 같다.

이러한 시발점의 모태(母胎)가 된 곳이 바로 삼각산 호국참회도량 도선사이다. 이곳에서 처음 2006년 10월 통도사에 첫 발을 내 디딘 이래, 2,500여명으로 시작된 순례기도회는 평균 5,000여명으로 늘어나 벌써 37회를 넘기고 있으며 참가 인원만 해도 무려 20여만 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71회 하고도 7년의 긴 세월이 아직 남아 있다. 한국불교 포교의 신기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비단, 순례기도회의 업적은 한국에만 국한 되지 않는다. 스리랑카, 네팔에도 결연을 맺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선묵 해자 스님이 이러한 108산사 순례기도회를 이끈 연유는 바로 청담 스님과의 무언(無言)의 약속 때문이다. 청담 스님이 평소 주창하신 것은 바로 한국불교 포교였다. 청담 스님은 한국불교 정화운동의 최일선에 나서 오늘의 한국불교를 있게 만든 대선사이다. 평소 청담 스님의 유지를 받들었던 선묵 해자 스님은 도선사 첫 소임을 맡은 후 7관세음 33일 기도회 봉행 하던 날, 꿈속에서 도선사의

포대 화상이 모셔진 자리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한 한 미소를 머금고 계신 청담 스님을 보았다고 한다. 그리고 2004년 7월 또 한 번의 7관세음 33일 기도회 봉행하던 중 기도 회향할 당일 청담 스님 석상(石像) 뒤편 하늘에 '일심(一心)의 행상을 띤 무지개가 나타났다고 한다. 스님에게 있어 이 행상의 의미는 다름 아닌 청담 스님과 불보살님이 자신에게 어떤 힘을 주는 것이라 생각되었다고. 그 후부터 스님은 모든 일을 자신 있게 추진해 나갔다. 그 가운데 시작한 것이 바로 '108산사 순례기도회'의 발족이었던 것이다.

도선사 하면 청담 스님의 공덕을 빼 놓을 수가 없다. 스님의 생애는 한국불교 근세사의 한 단면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한국 불교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한 위대한 수행자였으며 결코 산 속에서만 은거하는 소극적인 수행자가 아니었다. 세상 속에서 불타의 정견(正見)을 펴기를 서원한 행동하는 수행자였다. 따라서 근세의 고승들이 그들대로의 투철한 정신을 통해서 자기 세계를 구축하는데 성공했다면 청담 스님은 그러한 내면적 견성(見性)보다는 중생 속에서 자기의 원력

과 천문, 지리의 심오한 이치를 통달한 도선 국사가 명산 승지를 두루 답사 하다가 삼각산에 이르러 산세가 절묘하고 풍경이 수려한 이곳에서 천년 후 말세 불법이 재흥하리라 예견하고 사찰을 건립한 뒤 신통력으로 사찰 옆에 우뚝 서있는 큰 바위를 반으로 잘라 그 한쪽 면에다 주장자로 새겼다고 한다. 불가사의 한 것은 정으로 쪼은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곳이 바로 지금의 석불전(石佛殿)이다.

그 후 조선조 광무(光武) 7년에 황제로부터 정식 국가 기원도량으로 지정받은 후 한국불교 정화운동의 선각자인 청담 대선사가 불교의 역사적 사명인 민족적인 문화회개와 불교중흥 그리고 조국통일 성취를 위하여 참회를 통한 호국을 제창하는 원력을 세웠다. 그 후 박정희 대통령의 영부인 육영수 여사와 여러 신도들의 도움으로 호국불교의 의지가 한데 모여져 세워진 것이 오늘날의 도선사이다. 주련의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보자.

'아석소제악업 개유무시탐진치.'
내가 저 먼 과거로부터 지은 바 여러 가지 악업들은 모두가 다 저 시작도 끝도 없는 과거로부터의 탐진치 때문이라는 뜻이다. 참회라는 말은 원래 불교용어이다. 우리나라 불자들이 조석으로 외우는 <천수경>에는 '참회계'가 있다. 여기에 '십악참회'가 있다.

탐진치 악업은 끝없어도 한 생각 돌이키면 참회

호국참회도량 도선사, '108 산사순례'로 신행바람

을 성취함으로써 성불에 도달하고자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볼 때 선묵 해자 스님을 보면 '그 스승에게 제자'라는 말이 옳을 정도로 거침이 없고 어떤 일에도 주저하는 법이 없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108산사 순례기도회'를 회향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 도선사의 유래를 살펴보자. 도선사가 있는 삼각산은 예로부터 수도로 건립된 곳이며 조선왕조 오백년의 역사가 전개되었던 유서 깊은 곳으로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호국참회기도 도량이다. 이 사찰을 최초로 창건한 개산조(開山祖)는 신라말엽의 도선 국사이다. 그는 신라의 국운이 쇠퇴의 징조를 보이기 시작할 무렵, 흥덕왕 원년에 영암에서 태어났다.

스무 살에 혜철(惠徹) 대사에게 불도를 전해 듣고 오묘한 이치를 깨달았다고 한다. 23세에 천도사에서 구족계를 받고 비구가 되어 그 후 백계산에 옥룡사(玉龍寺)를 창건했는데 제자들이 구름처럼 모여 들었다고 한다. 이 때 스님의 명성을 들은 현강왕은 스님을 대궐로 모셔 법문을 들은 했다. 스님이 입적하시자 왕은 요공 국사(了空國師)의 칭호를 내렸다. 대방중창기(大方重創記)에 따르면 불법

'중신구의지소생 일체아금개참회.'

몸과 입과 뜻에 따라 지은 허물, 내가 이제 속속들이 참회 하나이다. 불교는 참회의 종교라고 할 수 있다. 즉 참회란 이전의 잘못을 누우치고 고친다는 뜻으로 산스크리트어의 '크사마(ksama)'를 음역한 참(懺)과 의역한 회(悔)로 이루어져 있다. 의미는 포살과 자자 의식을 통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고친다는 뜻이다.

'백겁적집죄 일념돈탕제 여화분고초.'

아무리 오래 동안 쌓인 죄라도 한 생각 돌이키면 문득 사라지네. 마치 마른 풀이 불에 타듯이. 불교의 참회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회의 내용은 <천수경>에 잘 나와 있는데 모든 악업들은 '신구의' 삼업으로 생기며 이제 이 일체를 다 참회한다는 내용이다.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 항목이 바로 십악참회인데 마지막으로 '울 살바 못자 사다야 사바하' 하고 천인을 의운다.

한국 불교 포교에 있어 매우 현실적이며 불교운동가였던 청담 스님이 떠난 지 25년, 오늘날의 한국 불교는 어떠한가. 스님의 원력을 얼마나 큰 결실을 맺고 있는가. 청담 스님의 행동하는 위대한 수행정신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오래도록 한국불교에 자양(滋養)이 되어 불교 중흥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 조계종 원로의원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혈맥론 36

알음알이 수행은 중생의 업보

[원문]

二乘外道皆無識 識數脩證 墮在因果中 是衆生業報 不免生死 違背佛意 卽是謗佛衆生 殺却無罪過 經云 闍提人 不生信心 殺却無罪過 若有信心 此人 是佛位人 若不見性 卽不用取次 謗他良善 自無益 善惡歷然 因果分明 天堂地獄 只在眼前 愚人不信 現墮黑暗地獄中 亦不覺不知 只緣業重故 所以不信 譬如無目人 不信道有光明 縱向伊說亦不信 只緣盲故 憑何辨得日光 愚人亦復如是 見今墮畜生 雜類 聽在貧窮下賤 求生不得 求死不得 雖受是苦 直問着 亦言我今快樂 不異天堂 故知一切衆生 生處爲樂 亦不覺不知 如斯惡人 只緣業障重故.

알음알이로 뒤야 증득하는 것은 인과에 떨어지는데, 이는 중생의 업보인지라 생사를 면하지 못하며 부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니라. 이런 중생은 부처님을 비방하는 중생인지라 죽어도 죄가 없느니라. 경전에도 '천제인(闍提人)은 신심을 내지 않으니 죽어도 죄가 없다'고 하셨느니라. 만약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사람은 부처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니라. 자기의 성품을 보지 못하였으면 절대로 어진 이를 비방하지 말지니라. 스스로를 파는 것이라 이익이 없느니라. 선과 악이 뚜렷하고 인과가 분명하며 천당과 지옥이 눈앞에 있느니라. 어리석은 사람은 믿지 않는 까닭에 흑암지옥에 떨어지더라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업장이 무거우므로 믿지 못한 까닭이니라. 소경이 해에 빛이 있다는 말을 믿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니라. 설사

그에게 말해주더라도 믿지 않음은 눈이 없기 때문인데, 어떻게 햇빛을 알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알아야. 일체중생은 태어난 곳을 즐거움으로 삼느라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이니라. 이와 같이 악한 사람은 업장이 두텁기 때문이니라.

[해설]

책이나 법문을 통해 이론적으로 아는 것은 남에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임이다. 바르게 가르칠 수가 없으므로 부처님의 가르침과는 어긋나게 됩니다. 내가 먼저 수행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득이 된 다음에 설명 하셔야 됩니다. 어설픈게 해서는 나도 속이고, 상대도 속이고, 부처님도 속이며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런 중생은 부처님을 비방하는 중생인지라 죽어도 죄가 없느니라.'

이런 표현은 너무 심하지만 그만큼 불법을 왜곡시키는 사람은 죄가 무겁다는 얘깁니다. 인과를 믿지 않는 사람,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 악행하는 사람을 천제인(闍提人)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천불을 만나도 성불하지 못한 답니다.

만약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사람은 부처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

'초발심시변정각(初發心時便正覺)'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처음 발심한 그 때가 곧 깨달음이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우주를 그대로 하나의 마음으로 두는 그 순간이 곧 성불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두고 염불을 하면 되는데, 이런 분들이 부처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의 성품을 보지 못하였으면 절대로 어진 이를 비방하지 말지니라.'

본인이 성품을 보지 못하였다면 남을 비방해선 안 됩니다. 지금은 잘 모르시겠지만, 내가 행한 것은 인과에 의해서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믿지 않는 까닭에 흑암지옥에 떨어지더라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업장이 무거우므로 믿지 못한 까닭이니라.'

생사가 없는 실상(實相) 자리를 믿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가거나 축생의 몸을 받더라도 전혀 알지 못하는데, 그것은 업이 무거워 믿지 못한 까닭이라고 합니다.

'설사 그에게 말해주더라도 믿지 않음은 눈이 없기 때문인데 어떻게 햇빛을 알 수 있겠느냐.'

구름이 많이 끼면 태양의 빛을 볼 수 없듯이, 중생은 불성의 무지에 의해 마음이 오염되어 마치 장벽에 막혀 있는 것과 같이 진리를 설한다 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중생은 업에 의해서 받은 몸이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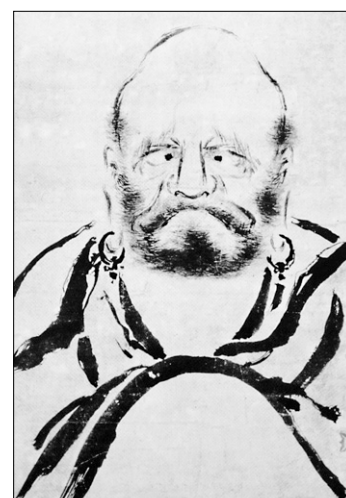
축생의 몸을 받더라도 얻을 수 없이 살아야 됩니다.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고 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업력에 의해서 어떤 몸을 받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고통을 받으면서도 직접 물어보면 '나의 지금 즐거움은 천당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느니라.'

축생의 몸을 받고 인간으로 태어나 물질에 끌려 사는 중생은 발발레가 화려한 불빛을 쫓아 자기가 죽을 줄 모르고 사는 미물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삶 속에서 괴로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하는 말들을 합니다. 마음 닦는 수행을 소홀히 하게 되면 축생의 몸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본래 부처다' '성불할 수 있다'는 말은 재가 불자들이 성품 자리에 마음을 두고 정진하면 견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바로 알고 하면 누구나 성불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성품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장좌불와를 몇 십년 하고, 오랫동안 염불하고 계율을 지켜도 성불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 청주 혜은사 주지



日 에도시대 '정면 달마도' (宮本武藏 作, 영청문고 소장)

불교 전통의식 교육안내



종교는 3대 요소가 생명입니다. 첫째는 종주, 둘째는 교리, 셋째는 의식입니다.

천상천하무여불 시방세계역무비 天上天下無如佛 十方世界亦無批

우리불교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부처님과 심심미묘한 법과 장엄하고 여법한 의식이 3대 요소입니다.

불자라면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는 의식은 기본이라 하겠습니다.

불교전통의식교육원에서는 불교전통 의식을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10여년에 걸쳐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교육은 단기과정(2박 3일)으로 세속인의 임종 후 시달림에서 발인, 매장, 화장, 사십구재 의식까지,

주로 안체비에 해당하는 의식교육을 실시합니다. 불교의식을 배우고자 하는 많은 분들의 참여바랍니다.

- ◆ 교육내용
· 안체비 : 시련, 신중작법, 시양단 (양례왕공), 대령관육, 시식
· 사물 다루는 법 : 목탁, 오령, 태징, 북
◆ 참가자격 : 불교전통의식에 관심있는 분 누구나 가능
◆ 교육접수기간 : 2009년 10월 22일까지

- ◆ 교육기간 : 2009년 10월 25일(음 9월 8일) ~ 27일(음 9월 10일)
◆ 교 재 비 : 5만원 (교육비는 무료)
◆ 장 소 : 학림사 (불교전통의식 교육원)
◆ 주 소 :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662-33번지
◆ 문 의 : 062)222-4133 (모집인원 선착순 접수)

학 립 사 불교전통의식 교육원